

검찰, 이명박에 징역 20년 구형

다스 비자금 349억 조성, 뇌물 등 16개 혐의 벌금 150억원에 추징금 111여억원과 함께 재판 시작 4개월만 종결... 선고 내달 초 전망

다스(DAS)를 실소유하며 349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넘어 사유화했고 부도덕한 결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권한 행사를 통해 국가 운영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 운영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역사와 국민 앞에 그동안 잘못을 고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진실은 은폐하고

지시를 따랐던 측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년간 전직 대통령들이 연달아 구속되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의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될 것"이라며 "하지만 하루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양형사유를 ▲헌법가치 훼손 ▲다스 관련 국민기만 ▲대통령으로서 직무 관련 사유화 ▲재벌과 유착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 훼손 ▲책임회피 등 6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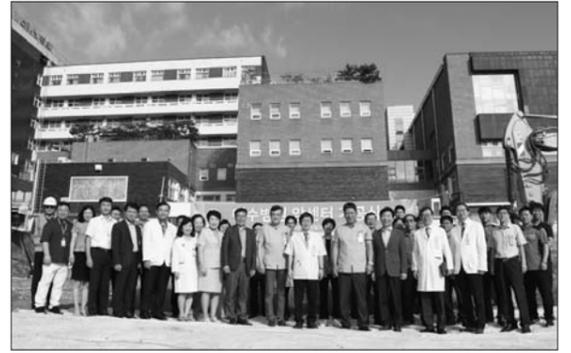
나뉘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지난 4월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450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 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별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 5월 3일 시작으로 3번의 준비기일을 포함해 총 30차례 열렸다. 선고는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 내려질 전망이다. /뉴스



예수병원은 지난 5일 권창영 병원장 비롯, 여러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철골주차장을 철거한 위치에 암센터 건축 착공식을 가졌다.

예수병원 암센터 착공

내년 5월 31일 완공 목표... CT 방사선촬영기 등 도입

예수병원은 지난 5일 권창영 병원장 비롯, 여러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철골주차장을 철거한 위치에 암센터 건축 착공식(암센터 전체 연면적 4.216㎡) 규모의 중대형 5층 31일 완공을 목표로 건축공사)을 가졌다.

아울러, 지하 1층은 근린 상가, 지상 1층은 응급센터 확장, 지상 2층은 로비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1층 예수병원 응급센터에 330명이 증가되어 이공간으로 그동안 접근성 문제가 된 식당 옆의 기존 격리진료실을 이전, 감염 격리공간의 신설해 메르스 등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특히, CT 방사선촬영기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해 신속하고 쾌적한 응급진료환경이 조성, 지역사회 응급환자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건축 공사를 통해 외래환자와 보호자, 입원 환자와 직원들

의 편리한 병원 생활을 위한 다양한 휴식 공간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암센터 공사 완공 후에는 3개 층 증축 공사가 연속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간호 간병 전문 감염 격리병실 건축이 완공되면 폐적한 입원 환경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번 공사로 인해 전주시에 조건부로 진행된 연결타 공사 시의 준공의 모든 요건이 완성되었고 암센터가 완공되면 제1주차장과 병원 환관 로비가 직접 연결된 환자리공간의 신설해 메르스 등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예수병원 앞 암센터는 앞으로 사이에 전주에서 설치 준비 중인 소공원과 연계된다.

한편, 예수병원 조경 숲에 아름다운 조경 숲이 조성되고 야간 조명 시설이 설치되면 과 예수병원 환우와 지역주민의 소중한 쉼터로 제공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안보단체협의회

강원도 철의삼각지 견학

전주시안보단체협의회(회장 채창수 전주시재향군인회장)는 지난 5일 전주시 12개 안보단체 회장단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현장 견학을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북한의 도발 현상인 제2땅굴과 평화전망대, 월정리역 등 남북한의 과거와 현재의 생활상을 비교할 수 있는 강원도 철원군의 철의 삼각지역을 방문했다.

채창수 회장은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평화 동행로 가는 길에 전주시안보단체 회원들이 앞장서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안보단체협의회는 재향군인회와 광복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유족회, 미망인회, 6.25참전자회, 월남전참전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해병전우회, 자유총연맹 등 12개 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발전을 위한 안보활동과 항토방위 협조 및 지원, 회원 단체 상호간의 친목 등을 도모하며 국가안보 제2보루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송효철 기자



아동친화공간... 송복초 참새방앗간 개장식

6일 전주시 송복초등학교에서 아동친화공간인 '송복초 참새방앗간' 개장식이 열린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이 학생들을 지켜보고 있다.

도시 곳곳 정원, 시민들의 손으로

전주시, 천만그루 가든시티 위해 어울림 정원 조성 식물·골목·이색·커뮤니티 등 다채롭게 꾸미기로

전주시가 천만그루 가든시티 조성을 위해 도시 곳곳에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가꾸는 어울림 정원을 조성한다.

천만그루 가든시티 조성은 민선7기 김승수 전주시장의 첫 결재사업으로 행정과 시민, 기업·민간단체 등이 함께 단 한평의 땅이라도 나무를 최우선적으로 심어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만들어 미세먼지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고 시원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천만그루 가든시티 전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돼 함께 마을을 가꾸고 조그만 정원을 꾸며나감으로써 마을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우리마을 어울림 정원 시범사업'을 추진, 오는 2026년까지 총 128개의 마을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마을의 공유공간과 주민 이용도가 높은 가로공

간 등을 최대한 활용해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도록 함으로써 도심 내 부족한 녹지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조성된 정원은 주민들이 스스로 돌보아 줄 수 있는 주민 어울림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중 사업 설명회와 마을주민 공모를 통해 총 3개소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마을 주민들은 오는 10월부터 2개월간 어울림 정원을 조성해 가꾸게 된다. 연말에는 조성된 정원에 대한 종합 평가의 자리도 마련된다.

특히, 시는 종합 평가를 통해 매년 '올해의 어울림 정원'을 선정하고, 정원 조성에 참여한 시민들이 추진 사례와 정원 조성 지원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직접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우리마을 어울림 정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시민 가드너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 가드너는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추고 시민 스스로 꽃과 나무를 가꾸는 문화 정착을 위해 봉사하는 시민으로 주민들에게 나무와 꽃을 가꾸는 방법 등을 소개하거나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는 정원을 조성하는 일을 돕게 된다.

시는 도심 곳곳 작은 마을정원들이 생겨나면 미세먼지와 열섬현상이 줄어들고, 각종 도시생태사업과 공동체 활성화사업 등과도 시너지효과를 발휘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을 기획한 민선7시 복지환경국장은 "천만그루 가든시티는 민선7기 전주시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2019년 본격 추진에 앞서 추진되는 우리마을 어울림 정원 시범사업은 시민들의 참여로 천만그루 나무심기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어울림 정원 조성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도내 3개 학교 급식서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전북지역 초·중·고등학교 3곳에서 살모넬라균으로 추정되는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해 도교육청과 보건당국 등이 긴급 조처에 나섰다.

6일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인 5일 익산의 A중학교와 완주 B중학교, 장수 C초등학교에서 동시 다발적인 학생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했다.

도 교육청 등은 이번 식중독 의심환자의 원인이 급식에 제공된 경기도 2곳의 식품회사에서 제공된 '조각 케이크'로 추정하고 있다. /뉴스

전주시, 청·장년층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열어

전주시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민하는 청·장년 구직자와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체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행사를 열었다.

시는 6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청·장년 구직자와 구인에 나선 중소기업을 연결해주는 맞춤형 일자리 행사인 '제6회 생산직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생산직 근로자 채용계획을 가진 (주)사조와인

코리아 협력업체인 (주)휴먼앤컴, 냉동볶음밥 제조업체인 한우물영농조합법인, 자동차 휠 제조업체인 (주)문화기업 등 총 3개 업체와 청·장년층 구직자 50여명이 참여해 현장면접을 했다.

행사에 참여한 이들 3개 업체는 면접을 통해 총 20명 이상의 신규인력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청·장년 구직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사를 통해 참여기업 구인조건에 맞

는 구직자 개개인별 상세한 맞춤상담을 거쳐 구직자를 사전에 접수받았다. 이후, 이날 현장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로써, 시가 올해 6차례에 걸친 소규모 일자리 행사를 통해 채용시킨 인원은 총 130명에 달한다.

시는 하반기에도 대규모 취업박람회 대비 예산대비 효율이 높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총 3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17일에는 자동차안전벨트 제조업체인 (주)세이제이프티와 (주)우주테크 생산직 30여명 신규채용 행사를 열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세외수입 운영평가 '최우수'

전주시는 전북도에서 주최한 '2017년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의 2017년 세외수입 징수 실적과 체납정리실적, 세원발굴 우수 시책 등 세외수입 운영현황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전년 대비 39억원이 증가한 총 972억원의 세외수입(일반·기타특별회계)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60억원 감소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징수율도 4.3%p 상승했다.

시는 세외수입 징수를 향상을 위해 체납담터를 활용한 '세외수입징수단'을 운영하고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와 함께 세입확충방안

을 모색한 점이 이 같은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세외수입 부서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전산교육과 부과·징수 실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업무 전문성을 높여왔으며 '전주시 세외수입 징수실무' 책자를 제작하는 등 담당자의 업무처리 표준화를 통한 납세서비스 개선에 힘써왔다.

김상용 시 세정과장은 "세외수입 운영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열악한 징수환경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한 세외수입담당자들의 노력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세외수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자주채원을 확충하도록 큰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가 6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방문했다.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 탄소융합기술원서 현장의정활동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박형배 의원)가 6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탄소기업체 등에 현장방문을 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방문에서 주요업무보고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한 뒤 기술원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전주시의회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100년 먹거리 탄소소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역내 다양한 기업들과의 현장소통으로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여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과 전주시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지원으로 이룬 것이라고 격려했다.

또한, 앞으로도 미래신성장산업의 초석을 다지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전주시의회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100년 먹거리 탄소소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역내 다양한 기업들과의 현장소통으로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여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